

# ‘고창 만수당’ 전북 유형문화유산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 역사성·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 등 가치 인정받아

고창군은 ‘고창 만수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난 10일자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고창 만수당’은 17세기 후반 진사 오도항이 인근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당’ 자리에 보정 김정희의 증조부인 만수 김영철의 명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정면 4칸 측면 4칸으로 큰 규모로 지어진 만수당은 전통적인 조선시대 목조기와 건축 양식을 계승하였으며, 중앙 강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을 둔 중정, 양측실(中廳, 兩側室) 구조로 교육 장소로도 활용됐다.

만수당은 현관과 편액을 통해 축조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문과 주연을 통해 다양한 문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됐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만수당은 마을의 구휼활동 등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지방건축사 정리에 필요한 표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아궁이를 배면에 배치하여 건물의 정면성을 강조하면서 배면 고상마루를 통해 건물의 운용감을 강조했다. 전체적인 구조가 견실하고 소박하며 일괄(一體)의 구성을 잘 갖추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인 김정희



‘고창 만수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난 10일자로 지정 예고됐다.

고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역사성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등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만수당을 통해 안동 김씨 가문이 고창을 도산리에 터를 잡은 뒤, 지역사회의 구휼과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고창은 유네스코 7가지 보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및 도 지정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창 만수당’과 ‘김정희 고개’를 함께 고창의 유산으로 잘 보존 및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필묵으로 다시 만나는 동학’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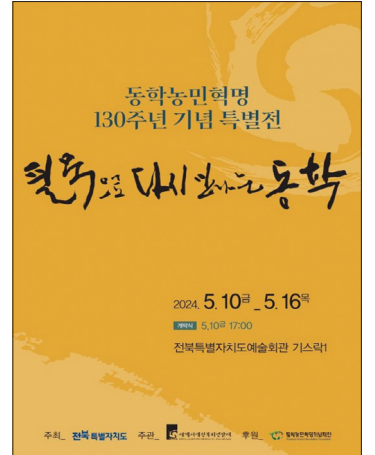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1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솔화관 기스라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필묵으로 다시 만나는 동학’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동학 정신을 소재로 도내에서 활동중인 서예가와 출향 서예가가 함께 참여해 동학의 역사와 정신을 필묵으로 승화시키고 재해석한 전통서예 작품과 시·서·화가 융합된 창작 서예작품 등 총 60점을 선보인다.

10일 오후에 개최된 개회식에는 송하진 조직위원장과 최병관 행정부지사,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및 동학관련 6개 기관 관계자, 박춘성 원로서예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립국악원의 식전공연과 서예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정신을 은누리에 꽃피우며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희망의 역사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량을 일깨우고 길러준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서예 전시는 서예문화진흥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조직위에서는 이러한 시의성에 맞는 특별전 개최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춘향제향’ 시작으로 제94회 남원춘향제 본격 개최

‘춘향, COLOR愛 반하다’ 주제 1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제94회 춘향제가 광한루 완월정에서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대향연의 막을 올렸다.

춘향제향은 춘향제의 상징이자 근간이 되는 전통 의식으로, 1931년 일제강점기에 춘향사당을 짓고 민족의식 고취와 열녀 춘향의 절개 및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단오(음력 5월 5일)에 제를 올린 것이 시초다.

올 춘향제향은 춘향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제원위원과 시립국악단 등 관계자 춘향제의 전통성과 원형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춘향제향’은 여성 제관이 진행을 맡아 접시례, 분향례, 전폐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 분축례 등 모두 9가지 전통 절차로 진행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사당에서 남원 권원이 첫 제를 올린 후 9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성이 제관을 맡아 진행하는 유일한 전통 제례의 식인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춘향제가 본격화된 만큼 7일간 치러지는 제94회 남원 춘향제를 많이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제94회 춘향제가 광한루 완월정에서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대향연의 막을 올렸다.

한편, 제94회 남원 춘향제는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총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과 예촌, 요전둔치,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춘향, COLOR

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함께 펼쳐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1일 명예원장 공개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31일까지 ‘전당 1일 명예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관점에서 전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 실천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명의 명예원장을 선발해 △전당 주요 핵심업무 청취 △주요 시설 현장방문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 △정책 제언 등 주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명예원장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관단체장 또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당 누리집(kcc.or.kr)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초 최종선정자가 발표된다.

김도영 원장은 “전당은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를 알리기 위해 시민기저단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열린 행정을 실천 중”이라며 “이번 1일 명예원장에 가장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전주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당 누리집(kcc.or.kr)을 참고하거나 전략정책팀(063-281-1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여성새일센터, 정리수납 서비스 신청자 모집

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는 오는 30일까지 정리수납 서비스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가정 내 가사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유도하고, 직업교육훈련 수료생들의 창업 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 경험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정리수납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팀이 선정가정을 방문해 사전 진단하고, 주방, 아이 놀

이방 등에 정리수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재료비(정리수납 도구 등)는 수혜가정이 부담한다.

신청자 수가 10가구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자녀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에 따라 선정을 예정이며, 신청순 마감된다.

신청대상은 전주시에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성년(만18세) 자녀가 있는 재직 여성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격의 대표작 중 하나다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